
V.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인식 및 니즈 분석

1. 설문조사 대상 및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현재와 같은 DB형 및 DC형 중심의 퇴직연금시장은 점진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중심의 퇴직연금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이외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지역연금가입자 등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중간정산자, 이직자, 퇴직자 등의 은퇴자금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또 하나의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 향후 개인형 퇴직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전국민 퇴직연금 가입시대에 맞추어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도 운영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롭게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수요자를 대상으로 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②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의사 또는 추가가입 니즈가 있는지, ③ 가입 시 어느 운용기관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은 어떠한다고 생각하는지, ④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어떠한 자산운용, 투자교육 등을 원하는지,

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개인형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 및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운영전략 수립은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형 퇴직연금 수요자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운영전략 방향성을 시장진출 전략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V-1〉 설문대상 및 방법

구분		세부내용	특징
설문 대상	근로자	20대 이상 근로자 563명	수도권 거주
	자영업자	20대 이상 자영업자 337명	
설문표본 수		900명	-
설문조사 방법		면접조사	
설문조사 형태		기입식, 단답식, 체크식, 5점 척도식	
설문조사 기관		(주) 사라홀딩스	
설문조사 기간		2010. 11. 10 ~ 2010. 11. 30	

설문은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 수요자인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근로자 및 자영업자 900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개인별 면접조사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기관은 퇴직연금 전문 리서치 회사인 (주)사라홀딩스이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형태는 기입식, 단답식, 체크식, 5점 척도 방식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통계처리를 위해 성, 연령, 결혼여부, 학력, 가족관계, 가구원 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소득 수준, 직군, 회사업종, 회사규모, 회사주소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설문내용은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

식 및 필요성, ②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 및 추가가입니즈 파악, ③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기관 선정, ④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인식 및 니즈, 투자교육, 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선 니즈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표 V-2〉 설문조사 구성 및 내용

대상	구분	주요 조사 내용	문항 수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제도 인식 - 퇴직급여제도 가입 - 가입 퇴직급여제도 종류 - 미가입 이유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식 - 개인형 퇴직연금 필요성 	6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가입 및 추가 가입니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할 의향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이유 - 월평균 납입할 금액수준 - 미가입 시 이유 - 중간정산액의 개인형 퇴직연금 이관 의향 - 개인형 퇴직연금 이관 이유 -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 가입여부 - 개인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중 가입여부 등 	10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운용기관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사업자 선정기관 -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이유 - 퇴직연금 모집인에 의한 가입의향 - 퇴직연금사업자 바꿀 의향 및 그 이유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개인형 퇴직연금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 운용상품별 선호하는 사업자 - 퇴직연금사업자 경쟁력 인식 - 퇴직연금전문자회사 선호 여부 등 	14
	IRP 자산운용 인식 및 니즈, 투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인식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선호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 설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설명니즈 - 개인형 퇴직연금제 설명방법 및 수단 - 퇴직연금자산운용 시 문제점 - 상품조합 시 선호상품 - 전문재무설계사의 서비스를 받을 의향 등 	19

〈표 V-2〉의 계속

대상	구분	주요 조사 내용	문항 수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 니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만 원 소득공제혜택 적정성 - 동일한 소득공제혜택에 대한 인식 - 배우자 가입허용 시 가입의사 - 개인형 퇴직연금 강제가입 허용 시 생각 - 정부기관의 적립운용 적정성 - 기본형 펀드에 대한 가입의사 - 추가적으로 기여할 의사 - 직접투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 투자환경변경 시 투자배분 비율 -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등 	13
	연금수급 및 노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의 지급형태 인식 - 종신연금 지급에 대한 인식 - 연금세제혜택 증가 시 연금수령 선호 여부 - 개인연금의 납입 선호기관 - 노후생활 경제적 준비 정도 - 은퇴준비 부족의 가장 큰 원인 - 주식투자 여부 및 비중 -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 건강상태 여부 및 예상 기대수명 -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연세 및 사망 연령 - 장수집안 여부 및 배우자 사업 여부 - 개인소득을 포함한 가구 총소득금액 - 예상 은퇴연도 - 직장 및 사업의 안정성 여부 등 	25

주: 설문내용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2. 기술적 분석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식 및 필요성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전체 설문대상자(n=809)에게 질문한 결과,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설문대상자의 64.0%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미흡 등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응답한 근로자(n=489)와 자영업자(n=320)를 구분하여 가입대상별로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근로자의 56.6%, 자영업자의 75.0%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향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보다 요구되고 있다.

<표 V-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인식

(n=809, 단위: %, 점)

구분	전혀 알지 못함	잘 알지 못한 편	보통이다	잘 아는 편	매우 잘 알고 있음	5점 평균
전체(809)	17.6	46.4	27.6	8.0	0.5	2.28
근로자(489)	14.5	42.1	31.9	10.8	0.6	2.41
자영업자(320)	22.2	52.8	20.9	3.8	0.3	2.07

이에 반해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설문대상자 중 단지 9.8%만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자영업자의 경우, 예상외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59.1%, “보통이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26.3%, “필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14.7%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V-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필요성

(n=809, 단위: %, 점)

구분	필요성 매우 높게 인식	필요성 인식	보통	필요성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5점 평균
전체(809)	15.6	51.5	23.1	8.7	1.1	3.72
근로자(489)	16.6	55.8	21.1	5.7	0.8	3.82
자영업자(320)	14.1	45.0	26.3	13.1	1.6	3.57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의향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전체 자영업자(n=320)의 56.6%가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입할 의향이 없는 자영업자는 43.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속성별로 보면 ① 남자가 여자보다, ② 40대 이상이 20~30대보다, ③ 학력이 높을수록, ④ 200만 원 이하 소득계층이, ⑤ 부동산 및 임대업>건설업>운수업>오락·운동관련 서비스업>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순으로 가입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업종별에서 도매 및 유통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수리업, 통신업 등은 40%대의 낮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의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의 유용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5〉 자영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의향

(n=320,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56.6	43.4
성별	남자	62.6	37.4
	여자	48.1	51.9
연령	20대	25.6	74.4
	30대	60.5	39.5
	40대 이상	62.0	38.0
학력	고졸 이하	49.1	50.9
	대졸	59.1	40.9
	석사/박사	90.0	10.0
월소득	200만 원 이하	61.0	39.0
	201만~300만 원	51.8	48.2
	301만 원 이상	57.9	42.1
업종	제조업	66.7	33.3
	건설업	72.7	27.3
	도매 및 유통업	47.7	52.3
	숙박/음식점업	47.5	52.5
	운수업	71.4	28.6
	통신업	40.0	60.0
	부동산 및 임대업	84.6	15.4
	사업서비스업	66.7	33.3
	교육서비스업	57.1	42.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7.1	42.9
	오락/운동관련 서비스업	70.0	30.0
	기타 공공/수리	46.4	53.6

다음으로 〈표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① 남자가 여자보다, ② 학력이 높을수록, ③ 30대 이상 연령에서, ④ 대리급) 차장급 순으로, 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보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약 20%의 저조한 가입할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의 설문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보다 근로자가 상

대적으로 다소 높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V-6〉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의향

(n=489,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성별	남자	75.7	24.3
	여자	67.1	32.9
학력	고졸 이하	62.7	37.3
	대졸	72.8	27.2
	석사/박사	81.4	18.6
연령	20대	70.0	30.0
	30대	74.0	26.0
	40대 이상	71.4	28.6
직책	사원	65.0	35.0
	주임급	67.9	32.1
	대리/계장급	81.8	18.2
	과장급	75.4	24.6
회사규모	차장이상	81.3	18.8
	대기업	80.0	20.0
	중기업	69.6	30.4
	소기업	69.5	30.5
월소득	200만 원 이하	67.6	32.4
	201만~300만 원	72.0	28.0
	301만 원 이상	79.3	20.7
업종	제조업	78.8	21.2
	건설업	75.5	24.5
	도매 및 소매업/유통업	60.8	39.2
	숙박/음식점업	20.0	80.0
	운수업	60.0	40.0
	통신업	73.3	26.7
	금융/보험업	78.6	21.4
	부동산 및 임대업	44.4	55.6
	사업서비스업	76.8	23.2
	교육서비스업	72.0	28.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5.8	24.2
	오락/운동관련 서비스업	71.4	28.6

3) 은퇴자금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의사 및 이유: 근로자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간정산, 이직 시, 퇴직연금 수령 시 받은 은퇴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또다시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15.2%) 보다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59.9%)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은퇴자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의사는 학력과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가입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은퇴자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의사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업종별로 분류하여 보면, 통신업(3.70점), 사업서비스업(3.61점), 건설업(3.55점), 교육서비스업(3.52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3.48점), 오락·운동관련서비스업(3.43점)의 순으로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2.60점) 등이 가장 낮은 가입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은퇴자금을 굳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결과, <표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된 노후대비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52.8%, “높은 수익률(급여수준) 기대”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39.0%인 반면,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용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각각 22.9%, 11.1%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수익률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경영 전략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V-7〉 은퇴자금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의사

(n=489, 단위: %, 점)

구분		적극적 가입의향	가입의향 있는 편	보통	의향이 없는 편	의향이 전혀 없음	5점 평균
전체		9.4	50.5	24.9	12.3	2.9	3.51
성별	남자	10.9	53.6	23.2	9.8	2.5	3.61
	여자	7.5	46.5	27.2	15.5	3.3	3.39
연령	20대	10.5	46.8	26.3	12.1	4.2	3.47
	30대	9.1	52.4	26.9	9.1	2.4	3.57
	40대 이상	7.7	53.8	17.6	19.8	1.1	3.47
학력	고졸 이하	13.3	42.7	18.7	14.7	10.7	3.33
	대졸	8.1	51.5	26.4	12.7	1.3	3.52
	석사/박사	14.0	55.8	23.3	4.7	2.3	3.74
월소득	200만 원 이하	9.2	44.9	28.0	13.0	4.8	3.41
	201~300만 원	9.9	52.8	24.8	10.6	1.9	3.58
	301만 원 이상	9.1	57.0	19.8	13.2	0.8	3.60
직책	사원	8.4	48.1	24.8	14.0	4.7	3.42
	주임급	3.8	54.7	28.3	11.3	1.9	3.47
	대리/계장급	13.0	49.4	27.3	6.5	3.9	3.61
	과장급	10.8	50.8	21.5	16.9	0.0	3.55
	차장 이상	11.3	55.0	23.8	10.0	0.0	3.68
규모	대기업	7.8	54.8	24.3	12.2	0.9	3.57
	중기업	10.6	53.6	19.3	13.0	3.4	3.55
	소기업	9.0	43.7	32.3	11.4	3.6	3.43
업종	제조업	5.1	54.5	25.3	12.1	3.0	3.46
	건설업	13.2	47.2	22.6	15.1	1.9	3.55
	도매 및 소매업/유통업	11.8	37.3	33.3	15.7	2.0	3.41
	숙박/음식점업	20.0	10.0	10.0	30.0	30.0	2.60
	운수업	10.0	40.0	20.0	20.0	10.0	3.20
	통신업	6.7	64.4	24.4	4.4	0.0	3.73
	부동산 및 임대업	0.0	33.3	33.3	33.3	0.0	3.00
	사업서비스업	14.3	51.8	19.6	8.9	5.4	3.61
	교육서비스업	6.0	56.0	24.0	12.0	2.0	3.5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1	51.5	21.2	15.2	3.0	3.48
오락/운동관련 서비스업	0.0	57.1	28.6	14.3	0.0	3.43	

〈표 V-8〉 은퇴자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이유

(n=415, 단위: %)

안정된 노후대비	높은 수익률/급여 수준 기대	퇴직금을 별도 적립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	퇴직연금 이전 용이	다양한 운용상품 존재	다른 사람이 선택하므로
52.8	39.0	36.1	22.9	21.4	11.1	3.6

4) 개인연금 가입자의 IRP 가입 및 연금선호도

현재 개인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 〈표 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설문대상자 중 약 70.1%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약 72.0%, 자영업자는 66.7%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가입의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 니즈 증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표 V-9〉 개인연금 가입자의 IRP 추가가입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70.1	29.9
근로자	72.0	28.0
자영업자	66.7	33.3

다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중에서 어느 연금을 보다 선호하느냐”고 질문한 결과(〈표 V-10〉 참조),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보다 선호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개인연금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보다 선호한다”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20.5%, “개인형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모두 선호한다”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15.9%에 이르고

있어 새롭게 개인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개인연금시장의 잠식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표 V-10〉 개인연금과 IRP 중 선호도

(단위: %)

구분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연금	둘 다 모두 의향 있음	둘 다 모두 의향 없음
전체(n=394)	29.2	33.5	17.3	20.1
근로자(n=218)	36.2	31.7	18.3	13.8
자영업자(n=176)	20.5	35.8	15.9	27.8

즉 개인연금시장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으로 대체되는 기능(대체효과)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금상품의 마케팅 전략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선호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사업자 및 선호이유

근로자가 선호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자로는 은행(47.1%), 생명보험회사(30.6%), 증권·투신사(12.8%), 손해보험회사(9.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11〉 참조). 먼저 생명보험회사를 사업자로 선호한 근로자는 “장기적·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이 뛰어나서(52.3%)”, “연금사업자로서의 전문성이 뛰어나서(26.7%)” 등을 주된 선호이유로, 손해보험회사를 사업자로 선호한 근로자는 “장기적·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이 뛰어나서(36.5%)”, “재무건전성 등 안전성이 높아서(34.6%)” 등을 주된 선호이유로 들고 있다.

〈표 V-11〉 근로자의 IRP 선호 금융회사 및 이유(1+2순위)

(n=563, 단위: %)

구분	선호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생명보험회사	30.6%	26.7	52.3	10.5	25.0	7.0	17.4	11.0	8.7	12.8	13.4	5.8	9.3
손해보험회사	9.2%	23.1	36.5	7.7	34.6	17.3	25.0	7.7	11.5	13.5	13.5	1.9	7.7
은행	47.1%	7.2	48.7	5.7	62.6	6.4	4.9	14.7	2.3	3.0	6.8	35.8	1.9
증권/투신사	12.8%	12.5	45.8	4.2	15.3	8.3	56.9	2.8	4.2	30.6	11.1	8.3	0.0

- 주: ① 연금사업자로서의 전문성이 뛰어나서 ② 장기적·안정적인 자산운용 능력이 뛰어나서
 ③ 교육 및 사후관리서비스가 우수해서 ④ 금융회사로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이 높아서
 ⑤ 수수료가 적정해서 ⑥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⑦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⑧ 퇴직연금제도 설계 능력이 뛰어나서
 ⑨ 연금자산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⑩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서
 ⑪ 금융회사와 접근의 편리성 때문에 ⑫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업자

이에 반해 은행을 사업자로 선호한 근로자는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이 높아서(62.6%)”, “장기적·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이 뛰어나서(48.7%)” 등을 주된 선호이유로 증권·투신사를 사업자로 선호한 근로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56.9%)”, “장기적·안정적인 자산운용이 뛰어나서(45.8%)” 등을 주된 선호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선호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를 선호하는 근로자들은 보험회사의 전문성과 장기운용능력을 많이 고려한 반면, 은행 및 증권사를 선호하는 근로자는 각각 재무건전성과 높은 수익률을 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로서의 금융회사 선호를 조사한 결과(〈표 V-12〉 참조), 근로자와 유사한 선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별 선호이유를 보면 근로자의 금융회사별 선호이유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를 사업자로 선호하는 자영업자는 “장기적·안정적인 운용능력이 뛰어나서(52.2%)”, “교육 및 사후관리서비스가 우수해서(32.7%)” 등을 주된 선호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회사를 사업자로 선호하는 자영업자는 “장기적·안정적인 운용능력이 뛰어나서(48.4%)”, “교육 및 사후관리서비스가 뛰어나서(35.5%)” 등을 주된 선호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표 V-12〉 자영업자의 IRP 선호 금융회사 및 이유(1+2순위)

(n=337, 단위: %)

구분	선호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생명보험회사	33.5%	18.6	52.2	32.7	7.1	3.5	21.2	14.2	6.2	18.6	12.4	7.1	6.2
손해보험회사	9.2%	32.3	48.4	35.5	16.1	0.0	16.1	9.7	9.7	16.1	9.7	3.2	3.2
은행	46.6%	14.6	51.0	54.8	5.7	5.1	8.3	14.6	1.3	3.2	4.5	31.8	5.1
증권/투신사	9.5%	18.8	43.8	15.6	0.0	3.1	43.8	0.0	6.3	46.9	9.4	12.5	0.0

주: ①~⑫는 〈표 V-11〉과 동일함.

특히 은행을 선호하는 자영업자는 “교육 및 사후관리 서비스가 뛰어나서 (54.8%)”를 주된 선호이유로 삼고 있어 근로자의 선호이유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투신사의 경우는 높은 수익률과 연금자산의 성장가능성을 주된 선호이유로 삼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증권·투신사 선호이유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6)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의향 모집채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당신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어느 모집채널을 통해 가입하려고 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표 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경우 보험설계사(57.8%), 투자권유대행인(24.7%), 보험대리점(17.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이루어져 보험설계사가 퇴직연금 가입 권유 및 판매허용이 된다면 보험설계사를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① 성별로 보면 여자 근로자(62.4%)가 남자 근로자(54.2%)보다, ② 연령별로 보면 30대(65.0%) 근로자가 20대 및 40대 이상 근로자 보다, ③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근로자(61.8%)가 대졸이상의 근로자 보다, ④ 회사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59.3%)가 중기업 및 대기업근로자 보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3〉 IRP 가입의향 모집채널(근로자)

(n=251, 단위: %)

구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투자권유대행인
전체		57.8	17.5	24.7
성별	남자	54.2	18.3	27.5
	여자	62.4	16.5	21.1
연령	20대	53.0	20.0	27.0
	30대	65.0	18.0	17.0
	40대 이상	52.8	8.3	38.9
학력	고졸 이하	61.8	14.7	23.5
	대졸	57.5	19.0	23.5
	석사/박사	52.9	5.9	41.2
회사 규모	대기업	55.6	22.2	22.2
	중기업	57.9	17.8	24.3
	소기업	59.3	13.6	27.2
월소득	200만 원 이하	55.3	20.4	24.3
	201만~300만 원	61.2	16.5	22.4
	301만 원 이상	57.1	14.3	28.6
업종	제조업	60.7	16.1	23.2
	건설업	50.0	23.3	26.7
	도매 및 소매업/유통업	58.8	23.5	17.6
	숙박/음식점업	50.0	0.0	50.0
	운수업	60.0	20.0	20.0
	통신업	68.2	0.0	31.8
	금융/보험업	42.9	21.4	35.7
	부동산 및 임대업	50.0	0.0	50.0
	사업서비스업	59.4	31.3	9.4
	교육서비스업	56.0	8.0	36.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4.7	23.5	11.8
	오락/운동관련 서비스업	50.0	0.0	50.0

또한 업종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통신업(68.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64.7%), 제조업(60.7%)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험설계사에 의한 가입의사가 높은 반면, 건설업(50.0%), 금융 및 보험업(42.9%)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들은 보험설계사에 의한 가입의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의향 모집채널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보험설계사(48.8%), 투자권유대행인(37.2%), 보험대리점(14.0%)의 순으로 가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가입의향은 20대 여자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또한 201만~300만 원 수준의 소득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보험설계사에 의한 가입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V-14〉 IRP 가입의향 모집채널(자영업자)

(n=129, 단위: %)

구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투자권유대행인
전체		48.8	14.0	37.2
성별	남자	48.1	10.4	41.6
	여자	50.0	19.2	30.8
연령	20대	88.9	0.0	11.1
	30대	49.0	7.8	43.1
	40대 이상	43.5	20.3	36.2
학력	고졸 이하	43.9	24.4	31.7
	대졸	50.6	8.2	41.2
	석사/박사	66.7	33.3	0.0
월소득	200만 원 이하	51.4	8.6	40.0
	201만~300만 원	60.0	13.3	26.7
	301만 원 이상	36.7	18.4	44.9
업종	제조업	36.4	27.3	36.4
	건설업	100.0	0.0	0.0
	도매 및 소매업/유통업	51.3	20.5	28.2
	숙박/음식점업	30.8	15.4	53.8
	운수업	50.0	50.0	0.0
	통신업	100.0	0.0	0.0
	부동산 및 임대업	50.0	0.0	50.0
	사업서비스업	43.8	6.3	50.0
	교육서비스업	50.0	7.1	42.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0.0	0.0	0.0
	오락/운동관련 서비스업	100.0	0.0	0.0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0.0	0.0	50.0

7) 개인형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을 보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59.0%), 금융회사로서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37.9%), 높은 수익률(32.9%), 연금사업자로서의 전문성(20.4%)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15〉 참조). 근로자의 경우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60.2%), 금융회사로서의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36.2%), 높은 수익률(34.5%), 연금사업자로서의 전문성(21.3%)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57.0%), 금융회사로서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40.7%), 높은 수익률(30.3%), 연금사업자로서의 전문성(19.0%) 순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낮은 수수료, 퇴직연금제도 설계 능력, 사후관리 서비스보다는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능력, 재무건전성 및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15〉 IRP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
(n=900,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20.4	59.0	11.9	37.9	8.3	32.9	2.6	7.8	12.1	3.3	3.7
근로자	21.3	60.2	11.7	36.2	7.5	34.5	2.8	7.5	10.8	3.4	4.1
자영업자	19.0	57.0	12.2	40.7	9.8	30.3	2.1	8.3	14.2	3.3	3.0

주: ①~⑪는 〈표 V-11〉과 동일함.

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사업자 선정의 우선적인 고려사항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표 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을 사업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

식하고 있는 반면, 오락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금융회사로서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62.5%)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6〉 근로자의 IRP 연금사업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
(n=563,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업종	제조업	19.0	61.2	15.5	31.0	9.5	34.5	3.4	6.9	12.1	4.3	2.6
	건설업	23.3	55.0	11.7	45.0	8.3	30.0	3.3	6.7	8.3	3.3	5.0
	도매 및 소매업/유통업	19.3	59.6	10.5	33.3	8.8	38.6	0.0	8.8	12.3	5.3	3.5
	숙박/음식점업	33.3	50.0	8.3	25.0	8.3	16.7	8.3	8.3	16.7	8.3	16.7
	운수업	27.3	63.6	9.1	18.2	0.0	54.5	18.2	0.0	0.0	0.0	9.1
	통신업	13.5	65.4	15.4	36.5	7.7	42.3	0.0	9.6	5.8	3.8	0.0
	금융/보험업	20.0	50.0	20.0	46.7	3.3	33.3	3.3	10.0	6.7	0.0	6.7
	부동산 및 임대업	22.2	66.7	0.0	55.6	0.0	11.1	0.0	11.1	11.1	22.2	0.0
	사업서비스업	26.2	58.5	4.6	30.8	4.6	38.5	0.0	10.8	16.9	4.6	4.6
	교육서비스업	29.3	63.8	3.4	41.4	5.2	29.3	3.4	5.2	12.1	0.0	6.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2	72.2	5.6	27.8	5.6	38.9	2.8	5.6	11.1	0.0	8.3
	오락/운동관련 서비스업	25.0	50.0	25.0	62.5	25.0	12.5	0.0	0.0	0.0	0.0	0.0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5.2	54.3	21.7	39.1	10.9	32.6	6.5	6.5	10.9	2.2	0.0

주: ①~⑪는 〈표 V-11〉과 동일함.

〈표 V-17〉 자영업자의 IRP 연금사업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
(n=337,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업종	제조업	22.7	27.3	18.2	22.7	0.0	4.5	0.0	0.0	0.0	4.5	0.0
	건설업	25.0	8.3	8.3	25.0	8.3	8.3	8.3	8.3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유통업	15.5	29.1	5.5	26.4	2.7	13.6	0.0	1.8	3.6	0.9	0.9
	숙박/음식점업	19.5	26.8	9.8	17.1	4.9	14.6	2.4	2.4	2.4	0.0	0.0
	운수업	0.0	28.6	0.0	42.9	0.0	14.3	0.0	0.0	0.0	0.0	14.3
	통신업	20.0	20.0	0.0	40.0	0.0	0.0	0.0	20.0	0.0	0.0	0.0
	금융/보험업	0.0	33.3	0.0	0.0	16.7	33.3	0.0	16.7	0.0	0.0	0.0
	부동산 및 임대업	0.0	28.6	7.1	21.4	0.0	28.6	0.0	7.1	7.1	0.0	0.0
	사업서비스업	12.1	39.4	3.0	18.2	6.1	3.0	0.0	3.0	6.1	3.0	6.1
	교육서비스업	12.1	39.4	3.0	12.1	3.0	6.1	0.0	0.0	15.2	3.0	6.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2.9	14.3	0.0	14.3	0.0	28.6	0.0	0.0	0.0	0.0	0.0
	오락/운동관련 서비스업	10.0	60.0	0.0	10.0	0.0	20.0	0.0	0.0	0.0	0.0	0.0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4	25.0	6.3	28.1	3.1	21.9	0.0	3.1	3.1	0.0	0.0	

주: ①~⑪는 〈표 V-11〉과 동일함.

또한 〈V-17〉에서 자영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 등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운수업 및 통신업 등은 재무건전성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업종별 최우선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업종별 특성에 부합한 경영전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8) 투자상품별 선호하는 사업자 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상품별로 선호하는 사업자는 어느 사업자인가”라고 질문한 결과,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67.9%), 보험회사(53.1%), 증권사(23.3%)의 순으로 나타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은행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식혼합형 및 주식형에 대해서는 증권사에 대한 선호도가 보험회사 및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8〉 IRP 운용상품 선정 시 선호 사업자(근로자)

(n=536, 단위: %)

구분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
원리금보장상품	53.1	67.9	23.3
채권형(채권 60% 이상)	42.8	54.2	38.2
채권혼합형(주식 0~40%)	42.1	50.6	48.5
주식혼합형(주식 40~60%)	34.3	43.9	60.0
주식형(60% 이상)	30.9	37.3	64.8

주: 행별 응답률은 중복응답을 포함함.

이에 반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한 결과에서는 〈표 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혼합형은 보험회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반면,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이, 주식혼합형 및 주식형은 증권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리금보장상품 등과 같은 안정성 운용상품에 대해서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익성 운용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선호도가 은행 및 보험회사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 보험회사가 은행 및 증권사에 비해 선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험회사에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표 V-19〉 IRP 운용상품 선정 시 선호 사업자(자영업자)

(n=337, 단위: %)

구분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
원리금보장상품	54.0	68.2	18.4
채권형(채권 60% 이상)	43.6	55.8	55.8
채권혼합형(주식 0~40%)	49.0	47.2	39.8
주식혼합형(주식 40~60%)	41.9	42.4	55.5
주식형(60% 이상)	33.5	37.4	64.4

9)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경쟁력 인식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력 평가 항목을 ①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② 자산운용능력, ③ 교육, 제도설계, 컨설팅 능력 ④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 ⑤ 적절한 수수료 책정, ⑥ 높은 수익률 및 연금자산의 성장가능성, ⑦ 이용의 편리성 및 신속성, ⑧ 사회적 인지도, ⑨ 다양한 운용상품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인식정도를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성(3.65점)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능력(3.90점)에서는 은행이, 교육 및 제도설계 등 컨설팅서비스(3.69점)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3.97점)과 적절한 수수료 책정(3.51점)에서는 은행이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가장 경쟁력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용의 편리성 및 신속성(4.02점), 사회적 인지도(3.96점)에서는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력 인식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다양한 운용상품 제공(3.60점)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경쟁력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보험회사는 대체로 퇴직연금사업의 3대 경쟁력 중 전문성, 서비스면에서 경쟁력 인식의 우위를 보임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시장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20〉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경쟁력 인식

(n=900, 단위: %, 점)

구분		매우 경쟁력 높다	경쟁력 있다	그저 그렇다	전혀 경쟁력 없다	경쟁력 없다	평균 점수
전문성	은행	5.6	53.2	35.9	0.6	4.8	3.58
	생보사	8.1	54.8	31.6	0.7	4.9	3.65
	손보사	6.0	39.1	45.9	1.0	8.0	3.41
	증권사	7.6	38.2	42.3	1.3	10.6	3.40
자산운용 능력	은행	17.1	60.1	18.8	0.3	3.7	3.90
	생보사	8.0	54.8	30.6	0.7	6.0	3.63
	손보사	8.0	54.8	30.6	0.7	6.0	3.63
	증권사	6.4	39.1	40.6	2.0	11.9	3.36
교육, 제도설계, 컨설팅 능력	은행	6.4	39.8	45.6	0.8	7.4	3.44
	생보사	10.7	54.0	29.7	0.3	5.3	3.69
	손보사	7.3	41.4	40.8	2.0	8.4	3.44
	증권사	6.7	40.6	42.7	0.7	9.4	3.43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	은행	21.7	56.2	19.6	0.3	2.2	3.97
	생보사	8.1	44.6	38.8	1.2	7.3	3.51
	손보사	5.0	33.6	49.1	2.0	10.3	3.29
	증권사	8.2	31.3	47.1	1.4	11.9	3.33
적정한 수수료 책정	은행	6.0	47.6	38.4	0.6	7.4	3.51
	생보사	4.2	34.9	48.7	2.1	10.1	3.29
	손보사	3.2	25.4	58.1	2.4	10.8	3.16
	증권사	4.9	26.2	50.7	2.3	15.9	3.15
높은 수익률 및 자산성장 가능성	은행	7.0	35.3	43.9	1.3	12.4	3.34
	생보사	6.8	44.2	41.1	0.9	7.0	3.49
	손보사	5.8	34.0	50.4	1.7	8.1	3.34
	증권사	14.4	46.2	33.4	0.9	5.0	3.68
이용 편리성, 신속성	은행	23.7	57.7	15.9	0.3	2.4	4.02
	생보사	4.9	37.3	42.3	1.9	13.6	3.30
	손보사	3.9	28.0	49.3	3.0	15.8	3.14
	증권사	5.1	32.2	48.9	2.7	11.1	3.26
사회적 인지도	은행	17.2	64.4	15.8	0.3	2.2	3.96
	생보사	7.2	48.2	36.2	0.7	7.7	3.54
	손보사	4.0	33.2	50.3	1.1	11.3	3.28
	증권사	5.7	37.1	46.4	1.2	9.6	3.36
다양한 운용상품 제공	은행	7.1	51.2	35.0	0.8	5.9	3.58
	생보사	8.6	49.7	35.6	0.4	5.8	3.60
	손보사	5.1	37.1	47.1	1.6	9.1	3.35
	증권사	9.1	44.1	38.1	1.1	7.6	3.53

10) 직업별 · 라이프사이클별 투자운용 성향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투자되는 운용상품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운용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39.8% 수준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는 37.2%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자영업자는 44.2%의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을 선호하고 있어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호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비율을 라이프사이클별로 보면 <표 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는 37.3%, 30대는 40.3%, 40대 이상은 41.7%의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비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1> 직업별 · 라이프사이클별 투자운용 성향

(n=900, 단위: %)

구분		10 미만	10~29	30~49	50~69	70 이상	평균
전체		7.7	32.1	24.8	20.8	14.7	39.8
직업	근로자	9.2	35.0	25.0	18.8	11.9	37.2
	자영업자	5.0	27.3	24.3	24.0	19.3	44.2
연령	20대	9.7	37.1	20.9	17.6	14.7	37.3
	30대	8.7	28.5	26.5	20.6	15.8	40.3
	40대 이상	4.1	31.8	26.6	24.3	13.1	41.7

11)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정보매체 활용 선호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보다 퇴직연금이해 및 투자지식이 부족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제공이 적절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또는 투자 시 어떠한 정보를 주로 활용하실 계획이냐”고 질문한 결과, <표 V-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들이 인터넷(46.1%)에 의해 유용한 정보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책자 및 팸플릿(29.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집합연수(8.9%), 사내정보 및 사내이메일(6.1%), 콜센터이메일(4.3%)에 대한 활용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비교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인터넷(49.9%)과 책자 및 팸플릿(34.1%) 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가 집합연수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라이프사이클별로 보면 인터넷 활용 선호도는 20대 및 40대 이상 보다 30대(49.6%)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책자 및 팸플릿 활용 선호는 20~30대 보다 40대 이상(34.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2〉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정보매체 활용 선호도

(n=900, 단위: %)

구분	집합연수	책자·팸플릿	VTR 교육	사내보/사내이메일	콜센터이메일	인터넷	기타	
전체	8.9	29.2	4.3	6.1	4.3	46.1	1.0	
직업	근로자	10.5	26.3	5.2	8.5	4.4	43.9	1.2
	자영업자	6.2	34.1	3.0	2.1	4.2	49.9	0.6
연령	20대	10.4	27.7	6.5	8.3	4.0	41.4	1.8
	30대	6.8	26.2	3.1	7.9	5.4	49.6	1.1
	40대 이상	10.1	34.8	3.7	1.5	3.4	46.4	0.0

12)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선호도

“퇴직 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후의 건강까지 보장하여 주는 건강보장을 가미한 개인형 퇴직연금상품이 있을 경우, 이러한 조합상품을 선택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표 V-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약 74.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각각 73.9%, 75.3%의 높은 선호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건강보장을 가미한 개인형 퇴직연금에 매우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장 가미 개인형 퇴직연금의 선호도를 라이프사이클 면에서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호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월소득수준 면에서 볼 때 200만 원 이하보다 200만 원 이상의 월소득수준 그룹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건강하지 않은 그룹보다는 건강한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건강보장 가미 개인형 퇴직연금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V-23〉 건강보장 가미 개인형 퇴직연금 선호도

(n=900, 단위: %, 점)

구분		생각이 있음	생각이 약간 있음	별로 관심 없음	관심 없음
전체		16.4	58.0	22.6	3.0
직업	근로자	18.1	55.8	24.0	2.1
	자영업자	13.6	61.7	20.2	4.5
연령	20대	15.5	54.0	25.5	5.0
	30대	16.3	59.4	21.4	2.8
	40대 이상	17.6	60.3	21.0	1.1
월소득	200만 원 이하	18.2	54.6	24.1	3.1
	201만~300만 원	15.0	61.1	21.5	2.4
	301만 원 이상	15.9	58.7	21.9	3.5
건강상태	건강함	16.9	58.1	22.2	2.8
	보통	15.7	58.9	22.5	3.0
	건강하지 않음	13.8	48.3	31.0	6.9

주: 4점 척도에 의해 선호도를 조사함.

다음으로 “퇴직 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보장하여 주는 가족건강보장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표 V-24〉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n=900)의 78.1%가 가입할 의향이 있

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77% 이상의 높은 가입의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종합건강보장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선호가 건강보장 가미 개인형 퇴직연금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라이프사이클별로는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가구원 수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원 수가 3명인 경우 76.8%, 4명인 경우 77.0%, 5명 이상인 경우 86.8%의 선호도를 보여 가족원 수에 따른 선호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종합건강보장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선호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노후소득)에 건강보장을 카페테리아플랜 형태나 특약 형태로 건강보장을 조합한 향후 상품의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V-24〉 종합건강보장 가미 개인형 퇴직연금 선호도

(n=900, 단위: %, 점)

구분		생각이 있음	생각이 약간 있음	별로 관심 없음	관심 없음	평균점수
전체		18.9	59.2	18.9	3.0	2.94
직업	근로자	20.8	57.5	19.0	2.7	2.96
	자영업자	15.7	62.0	18.7	3.6	2.90
연령	20대	18.0	54.7	23.7	3.6	2.87
	30대	18.0	60.8	18.9	2.3	2.95
	40대 이상	21.0	61.8	13.9	3.4	3.00
가구원수	3명	20.6	56.2	18.9	4.3	2.93
	4명	15.8	61.2	21.2	1.7	2.91
	5명 이상	32.3	54.5	11.1	2.0	3.17
월소득	200만 원 이하	19.1	56.8	19.8	4.3	2.91
	201만~300만 원	16.7	64.2	17.4	1.7	2.96
	301만 원 이상	20.8	56.9	19.4	2.8	2.96
건강상태	건강함	20.0	60.3	17.2	2.5	2.98
	보통	16.9	57.2	22.9	3.0	2.88
	건강하지 않음	10.3	51.7	24.1	13.8	2.59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원리금보장상품과 건강보험상품의 개발면에서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상품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니즈에 부응한 다양한 상품을 조합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13) 재무설계 관련 서비스 선호도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적립단계 및 은퇴 이후 소진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적립단계 및 은퇴 이후의 소진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재무설계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무설계관련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표 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2.3%(근로자 33.2%, 자영업자 30.9%)에 이르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전문재무설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V-26>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n=900, 단위: %, 점)

구분		있다	약간 있다	보통	별로 관심 없다	관심 없다	평균 점수
전체		4.1	28.2	33.6	29.7	4.4	2.98
직업	근로자	4.6	28.6	34.8	27.9	4.1	3.02
	자영업자	3.3	27.6	31.5	32.6	5.0	2.91
성별	남자	4.5	29.0	34.7	27.1	4.7	3.02
	여자	3.6	27.2	32.1	33.1	4.1	2.93

주: 전문 재무설계사에 대한 서비스 대가 지불(유료서비스제공)을 전제로 함.

따라서 별도의 재무설계관련 서비스 대가가 없다고 가정하고 설문조사한 경우 재무설계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호도는 훨씬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재무설계서비스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보험회사는 어떻게 개인

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적합한 맞춤형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선점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 인식 및 선호도

가) 개인형 퇴직연금 세제 개선 선호도

현재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시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연금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문한 결과, <표 V-27>과 같이 전반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별로 연금소득공제를 차별화하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약 48.2%인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는 3.37점, 근로자는 3.46점, 자영업자는 3.22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소득공제차별화 선호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7>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소득공제 차별화 선호도
(n=900, 단위: %, 점)

구분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	약간 반대	적극 반대	5점 척도
전체	6.8	41.4	36.8	12.1	2.9	3.37
근로자	8.7	42.5	37.3	9.2	2.3	3.46
자영업자	3.6	39.8	35.9	16.9	3.9	3.22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할 때 퇴직연금소득공제를 퇴직연금 가입대상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차별화하여 연금세제의 형평성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패키지화(기본형 펀드) 투자제도 도입 선호도

기본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 등은 어떠한 운용상품에 투자하여야 하는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에서는 자영업자 등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되도록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특별한 운용제시가 없는 경우 다양한 운용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화한 기본형 펀드(디폴트 펀드)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V-28〉 기본형 펀드 투자 선호도

(n=900, 단위: %, 점)

구분	적극 가입	대체로 가입	보통	대체로 미가입	전혀 미가입	5점 척도
전체	4.9	41.7	44.1	7.6	1.8	3.40
근로자	5.9	44.8	41.7	6.0	1.6	3.47
자영업자	3.3	36.5	48.1	10.1	2.1	3.29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만약 이러한 기본형 펀드(디폴트 펀드)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본형 펀드에 어느 정도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전체의 46.6%가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의 9.4%만이 “대체로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기본형 펀드에 대한 가입선호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는 3.47점, 자영업자는 3.29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기본형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개인형 퇴직연금 지급체계 인식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지급체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일시금 또는 5년 이상 연금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일시금 지급에 따른 연금재원의 소진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급여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의 퇴직급여 단일화 추진은 일시금을 최저한도로 제한 또는 폐지 하되, 연금지급을 의무화(강제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일시금을 선호하는지, 연금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부분은 일시금을 선호하되 일정부분은 연금을 선호하는지를 퇴직연금 지급체계 개선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표 V-29〉 개인형 퇴직연금 지급체계 선호도

(n=900, 단위: %)

구분		일시금지급	연금지급	일부일시금 일부연금
전체		19.7	37.3	43.0
직업	근로자	21.3	39.3	39.4
	자영업자	16.9	34.1	49.0
성별	남자	19.6	41.0	39.4
	여자	19.7	32.6	47.7
연령	20대	22.7	36.3	41.0
	30대	21.4	35.5	43.1
	40대 이상	14.2	40.8	44.9
학력	고졸 이하	14.2	38.7	47.1
	대졸	21.6	37.8	40.6
	석사/박사	17.2	27.6	55.2
가구원수	2명 이하	22.1	31.9	46.0
	3명	24.5	33.9	41.6
	4명	14.8	39.3	45.9
	5명 이상	24.2	46.5	29.3
월소득	200만 원 이하	23.5	37.3	39.2
	201만~300만 원	15.7	39.6	44.7
	301만 원 이상	19.4	35.0	45.6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시금, 연금, 또는 일부 일시금·일부연금 등에 대한 선호도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 예상외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일부일시금·일부연금 형태로 지급받기를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지급체계를 조사한 결과, 일부일시금·일부연금지급(43.0%), 연금지급(37.3%), 일시금지급(19.3%)의 순으로 나타나 일부일시금·일부연금 지급 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선호도는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일시금지급 선호가 21.3%에 이르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따른 노후대비부족 등에 기인하여 일시금지급에 대한 선호도(16.9%)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속성별로 볼 때, <표 V-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이프사이클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연금위주의 지급체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노후대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족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완전연금화(단일연금화)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 지출 과대 등에 따른 노후대비 여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퇴직자산에 대한 연금화를 보다 강하게 원해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월소득 수준면에 볼 때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에서 연금지급형태(일부일시금 및 일부연금 포함)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계층에서 일시금을 보다 선호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생활비 지출이 과다하여 연금을 통한 노후자금 확보에 대한 여유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통계적 분석

가. 분석방법 및 절차

분석은 기술적 분석과 회귀 분석을 병행하였다. 기술적 분석은 회귀 분석을 적용하기 어려운 주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설문 등에 적용되었으며, 회귀 분석은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이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단순회귀 분석 또는 종속변수를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성격상 이산변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산변수의 성격에 따라 로짓(Logit), 순위로짓(Ordered Logit),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등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은퇴 이후 자산소진단계에서 전문 재무설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니다(y_0), 보통(y_1), 그렇다(y_2)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관찰되지 않은 선호도는 순차적 데이터에 의한 잠재회귀모형(Latent Regression Model)으로 설정하여 순위로짓(Ordered Logit)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순위로짓 또는 순위프로빗(Ordered Probit)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본인 스스로가 순위의 값을 부여하는 응답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하기에 적합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이다.

재무설계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잠재적인 값(y^*)과 설명변수 벡터(x)와의 내재된 관계식은 (식 1)과 같이 설정된다.

$$y^* = x'\beta + u \quad (\text{식 1})$$

여기서 β' 는 계수의 벡터, u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잠재적인 변수 y^* 가 관찰되지 않는 특정 기준값(Unknown Thresholds)을 넘어설 경우 응답자의 응답도 점차 높은 값으로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y^* 가 매우 낮으면 부정적, $y^* > a_1$ 면 보통, $y^* > a_2$ 면 긍정적으로 점차 그 값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응답자가 m 개의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순위로짓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 = j \quad \text{if } a_{j-1} < y^* \leq a_j \quad (\text{식 2})$$

여기서 $a_0 = -\infty$ 그리고 $a_m = \infty$ 이다. 즉,

$$\begin{aligned} \Pr(y = j) &= \Pr(a_{j-1} < y^* \leq a_j) \\ &= \Pr(a_{j-1} < x'\beta + u \leq a_j) \\ &= \Pr(a_{j-1} - x'\beta + u < u \leq a_j - x'\beta) \\ &= F(a_{j-1} - x'\beta) - F(a_j - x'\beta) \end{aligned} \quad (\text{식 3})$$

여기서 F 는 u 의 누적분포함수이며 u 는 로지스틱분포를 취하게 된다.²²⁾ 순위로짓모형을 이용한 회귀 분석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rac{\partial \Pr(y = j)}{\partial x} = F'(a_{j-1} - x'\beta) - F'(a_j - x'\beta)\beta \quad (\text{식 4})$$

여기서 F' 는 F 의 미분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한계효과를 살펴보기보다는 개인형 퇴직연금 잠재가입자의 성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한계효과보다는 추정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여, 한계효과는 산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가 선택적 이산변수일 경우에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 잠재가입자에게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경우 선호하는 금융회사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으며, 응답으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그리고 증권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기 때문에 다항로짓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22) 만약 u 가 정규분포를 취하면 순위프라빗모형이 되는 것이다.

$$P(Y_i = j) = g(X_i\beta_j) = \frac{\exp(\alpha_j + X_i\beta_j)}{1 + \exp(\alpha_j + X_i\beta_j)}, \quad j = 1, 2, \dots, M-1 \quad (\text{식 5})$$

M 은 종속변수의 가짓수이며, 본 연구의 경우 4가 되며, Y 가 1, ..., M 의 값을 취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P(Y_i = 1) &= 1 - g(X_i\beta_1) \\ P(Y_i = j) &= g(X_i\beta_{j-1}) - g(X_i\beta_j) \quad j = 2, \dots, M-1 \\ P(Y_i = M) &= g(X_i\beta_{M-1}) \end{aligned} \quad (\text{식 6})$$

나. 통계적 분석결과

1)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 잠재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 이외에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표 V-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소득 대비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의사에 대한 응답을 “예”와 “아니오”로 구분하여 로짓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V-30〉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여부 의향

독립변수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연령	30대	0.636***	0.201	0.245	0.254	1.065**	0.445
	40대 이상	0.585**	0.253	-0.013	0.386	0.952**	0.475
로그(소득)		0.245	0.169	0.507**	0.236	0.013	0.272
남성		0.446***	0.163	0.151	0.214	0.698**	0.286
대학졸업		0.438**	0.185	0.300	0.285	0.858*	0.275
건강함		0.361**	0.172	0.040	0.225	0.860***	0.280
기혼		-0.520**	0.207	-0.529**	0.276	-0.758**	0.346
서울거주		-0.603***	0.159	-0.587***	0.208	-0.585**	0.264
IRP인지수준		0.614***	0.173	0.709***	0.220	1.874*	0.698
개인연금가입		1.301***	0.159	1.468***	0.207	1.036***	0.262
맞벌이		0.401**	0.182	0.478**	0.233	0.594*	0.315
주택소유		-0.113	0.181	0.157	0.223	0.357*	0.332
근로자		0.303*	0.172	-	-	-	-
직장 내 직위		-	-	0.204***	0.078	-	-
기업규모	중기업	-	-	-0.530*	0.299	-	-
	대기업	-	-	-0.370	0.317	-	-
상수항		0.739	0.981	3.366**	1.566	-0.229	1.612

그 결과 20대의 젊은층보다는 30대 또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 고학력자, 상대적으로 장기의 노후기간을 보내야 할 건강한 사람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여부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할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후에 관심이 많아 개인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상관없이 가입할 의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

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사업자선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금융회사 선정에 대해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사용하여 은행을 기준으로 설정한 후, 은행을 기준그룹으로 설정하여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표 V-31〉 참조)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잠재가입자들에게 특별히 어필하는 금융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남성이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증권사를 다른 금융회사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적 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의해서 금융회사 선정이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기술적 분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운용성향에 따라 금융회사 선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의 결과로부터 금융 또는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고학력자들이 증권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1〉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선호도

금융 회사 선택	독립변수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생명보 험회사	연령 30대	0.248	0.205	0.222	0.241	0.716*	0.423
	연령 40대 이상	0.026	0.253	-0.227	0.350	0.625	0.455
	로그(소득)	-0.026	0.168	0.118	0.219	-0.206	0.270
	남성	0.144	0.160	0.020	0.209	0.397	0.262
	대학졸업	-0.096	0.189	0.042	0.278	-0.174	0.267
	기혼	0.166	0.187	0.069	0.241	0.372	0.305
	서울거주	-0.157	0.159	-0.333*	0.197	0.219	0.268
	근로자	-0.059	0.173	-	-	-	-
	상수항	-0.317	1.007	-1.068	1.297	-0.193	1.646
손해보 험회사	연령30대	0.034	0.318	-0.189	0.376	1.235*	0.721
	연령40대 이상	-0.064	0.391	-0.290	0.526	1.046	0.844
	로그(소득)	-0.498*	0.266	-0.508*	0.303	-0.463	0.428
	남성	-0.007	0.249	0.060	0.323	-0.115	0.407
	대학졸업	-0.125	0.290	-0.177	0.398	-0.004	0.423
	기혼	0.240	0.293	0.206	0.375	0.315	0.490
	서울거주	0.062	0.253	-0.108	0.317	0.502	0.432
	근로자	0.028	0.275	-	-	-	-
	상수항	1.217	1.552	1.557	1.988	-0.344	2.604
증권사	연령 30대	0.444*	0.223	0.491*	0.289	0.487	0.623
	연령 40대 이상	0.109	0.371	0.082	0.471	0.297	0.671
	로그(소득)	-0.006	0.239	-0.154	0.299	0.324	0.425
	남성	0.427*	0.237	0.489*	0.285	0.294	0.416
	대학졸업	0.619**	0.398	0.236*	0.128	1.254**	0.570
	기혼	-0.027	0.265	-0.074	0.329	-0.027	0.461
	서울거주	-0.267	0.226	-0.432	0.275	0.077	0.423
	근로자	0.214	0.255	-	-	-	-
	상수항	-2.315*	1.245	-0.823	1.766	-5.027*	2.658

주: 1) 종속변수는 IRP가입 시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산변수이자 선택변수 때문에 다항로짓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적용함.

2) 기준이 되는 종속변수는 '은행'임.

결국 보험회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은행 및 증권사를 선호하는 잠재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수익률제고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회귀 분석 결과, 개인형 퇴직연금 잠재고객들이 선호하는 특정 금융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시장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자산운용 스타일에 대한 분석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상품설계 및 영업 전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가입자 특성별로 안전자산 선호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투자되는 운용상품 중 원리금 보장상품에 운용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으며, 각 응답자는 번호별로 부여된 운용자산 비율을 선택하도록 하였다.²³⁾ 이렇게 종속변수가 이산변수이면서 선택된 번호별로 안전자산 비율이 증가하는 형태이므로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분석을 위해 설문대상자에게 안전자산 비율을 직접 입력하게 하여 종속변수를 만들었다. 이 경우에는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로그값으로 변환²⁴⁾한 이후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측면에서 연속변수를 활용한 모형(〈표 V-32〉 참조)이 이산변수를 활용한 모형(〈표 V-33〉 참조)보다 우월하여 GLM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적합하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총 샘플을 분석한 결과 수입이 많을수록 안전한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고위험

23)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⑥ 70% 이상.

24) 단순회귀 분석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가정하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종속변수를 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가 고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에 비해 노후소득에 대한 걱정이 낮은 그룹이 리스크가 높더라도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매월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고위험자산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V-32) 자산운용의 안전자산 비율 선호도(일반화선형모형)

독립변수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연령	30대	0.059	0.063	0.050	0.076	-0.043	0.125
	40대 이상	0.044	0.079	0.183**	0.809	-0.219*	0.132
로그(소득)		0.289***	0.053	0.334***	0.070	0.221***	0.082
남성		0.108**	0.051	0.098**	0.052	0.109	0.084
대학졸업		-0.007	0.060	-0.075	0.087	0.024	0.080
건강함		0.068	0.054	0.183***	0.070	-0.132*	0.078
기혼		0.068	0.064	0.074	0.083	0.024	0.101
서울거주		0.073	0.049	0.093	0.064	0.044	0.079
맞벌이		-0.040	0.056	-0.102	0.071	0.101	0.094
주택소유		-0.158***	0.056	-0.159**	0.070	-0.206**	0.095
근로자		-0.207***	0.054	-	-	-	-
상수항		1.792***	0.310	1.283***	0.403	2.495***	0.481

주: 1) 종속변수를 로그(안전자산비율)값으로 변환하여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의 모형을 적용함.

2) 근로자에 해당하는 회사규모, 직위 등의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 전체 설명력이 감소하여 제외함.

〈표 V-33〉 자산운용의 안전자산 비율 선호도(순위로짓모형)

독립변수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연령	30대	0.161	0.162	0.064	0.192	0.148	0.332
	40대 이상	-0.004	0.200	0.358**	0.170	-0.532	0.350
로그(소득)		0.686***	0.141	0.808***	0.183	0.513***	0.221
남성		0.250**	0.120	0.208	0.164	0.323	0.227
대학졸업		-0.093	0.150	-0.210	0.213	-0.089	0.213
건강함		0.101	0.139	0.356**	0.180	-0.339	0.225
기혼		0.127	0.164	0.237	0.210	-0.215	0.272
서울거주		0.191	0.126	0.214	0.160	0.207	0.216
맞벌이		-0.072	0.141	-0.269	0.175	0.424*	0.250
부동산소유		-0.362***	0.141	-0.382**	0.174	-0.394	0.249
근로자		-0.563***	0.136	-	-	-	-

주: 1) 종속변수가 안전자산을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택하는 이산변수이므로 순위로짓(Ordered Logit)모형을 적용함.

2) 근로자에 해당하는 회사규모, 직위 등의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 전체 설명력이 감소하여 제외함.

근로자 중에서는 일반적인 예상처럼 연령이 높은 40대 이상과 건강한 사람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는 40대 이상이 20대보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소유주의 경우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재무설계서비스 활용

개인형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 및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기본 가입자 이외에도 이직자 및 퇴직자의 적립된 퇴직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되어 자산소진기로 이어지는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

소진기의 자산설계서비스에 대한 니즈 분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단계 및 은퇴 이후 자산소진단계에서 전문 재무설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도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하였으며 응답자는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있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분석하였다.

〈표 V-34〉 재무설계서비스 이용여부

독립변수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연령	30대	0.032	0.164	-0.050	0.192	0.526	0.368
	40대 이상	0.095*	0.049	-0.251	0.281	0.726**	0.334
로그(소득)		0.001	0.140	-0.037	0.180	0.109*	0.061
남성		0.236*	0.135	0.357**	0.171	0.121	0.239
대학졸업		0.066	0.155	0.165	0.222	0.025	0.222
건강함		0.034	0.137	-0.017	0.176	0.080	0.227
대가족(4인 이상)		0.738***	0.205	0.576**	0.255	1.129***	0.359
기혼		-0.158	0.167	-0.060	0.211	-0.328	0.284
서울거주		-0.217*	0.129	-0.244	0.163	-0.089	0.226
IRA인지수준		0.318**	0.141	0.107	0.172	0.842***	0.255
개인연금 가입		0.436***	0.130	0.350**	0.165	0.547***	0.218
맞벌이		0.471***	0.148	0.498***	0.184	0.409*	0.242
주택소유		-0.047	0.150	0.028	0.181	-0.154	0.275
근로자		0.117	0.144	-	-	-	-

주: 1) 종속변수는 자산설계서비스 활용 여부에 대한 이산변수이기 때문에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형을 적용함.

2) 근로자에 해당하는 회사규모, 직위 등의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 전체 설명력이 감소하여 제외함.

자산소진기의 재무설계사 이용여부에 대한 응답이 이산변수이면서 이용여부가 순위로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순위로짓(Ordered Logit)모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은퇴연령기에 가까운 40대 이상 연령층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경우와 맞벌이인 경우 가계의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재무설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거나 개인연금이 가입하여 평소에 노후설계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처럼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이 많을수록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근로자는 수입수준이 재무설계서비스 활용여부를 결정짓는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 퇴직금수령 시 연금형태 선호도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선호처럼 퇴직적립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IRP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적립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영업단계에서부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 등 목돈이 생긴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어떤 형태로 받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시금지급’, ‘연금지급’, ‘일부 일시금·일부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퇴직급여 수령형태가 각각 다른 세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을 일차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지만(〈표 V-36〉 참조),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할 때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금지급’과 ‘일부 일시금 일부 연금’은 수령형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두 응답을 모두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구분하여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표 V-35〉 참조). 분석결과, 은퇴시기에 접어든 40대 이상 근로자들이 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의 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고학력자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연금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35〉 퇴직급여 연금형태 선호 분석(로지분석)

독립변수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연령	30대	0.034	0.218	0.185	0.253	-0.743	0.568
	40대 이상	0.476*	0.272	0.490*	0.293	0.010	0.619
로그(소득)		-0.230	0.191	-0.335*	0.187	-0.039	0.346
남성		-0.066	0.183	-0.031	0.224	-0.119	0.350
대학졸업		0.449**	0.212	0.087*	0.048	1.248***	0.399
건강함		0.089*	0.047	0.018*	0.010	0.221*	0.126
기혼		0.020	0.226	0.221	0.281	-0.556	0.432
서울거주		0.185	0.177	0.120	0.217	0.259	0.326
개인연금가입		0.389**	0.181	0.590***	0.225	0.086*	0.048
맞벌이		-0.179*	0.101	-0.101*	0.052	-0.227	0.382
주택소유		-0.314*	0.180	-0.359*	0.210	-0.250	0.406
근로자		-0.132**	0.066	-	-	-	-
상수항		0.326	1.107	-0.980	1.365	3.460*	2.042

주: 1) 종속변수는 연금형태 선호의 이산변수이므로 로짓(Logit)모형을 적용함.

2) 근로자에 해당하는 회사규모, 직위 등의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 전체 설명력이 감소하여 제외함.

이는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기대수명이 높고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여 장기의 노후를 준비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36〉 퇴직급여 연금형태 선호도(다항로짓분석)

수령 형태	독립변수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 편차	추정 계수	표준편차
일 시 금	연령	30대	-0.094	0.239	-0.340	0.282	0.984*	0.587
		40대 이상	-0.495*	0.286	-0.800*	0.430	0.432	0.640
		로그(수입)	-0.423**	0.209	-0.559**	0.265	-0.083	0.366
		남성	0.312*	0.183	0.314	0.250	0.291	0.370
		대학졸업	0.462*	0.248	-0.241	0.330	1.396***	0.413
		건강함	0.241**	0.120	0.079	0.268	0.383**	0.192
		기혼	-0.027	0.247	-0.185	0.313	0.520	0.454
		서울거주	-0.134	0.193	-0.148	0.241	-0.020	0.349
		개인연금가입	-0.342*	0.196	-0.491**	0.248	-0.203	0.340
		맞벌이	0.405*	0.222	0.335**	0.163	0.387	0.409
		주택소유	0.398*	0.227	0.554**	0.272	0.168	0.432
		근로자	0.309	0.213	-	-	-	-
		상수항	1.026	1.199	2.534*	1.519	-1.653	2.088
연 금	연령	30대	-0.121	0.206	-0.301	0.243	0.711	0.456
		40대 이상	-0.083	0.253	-0.609*	0.342	1.144**	0.479
		로그(수입)	-0.411**	0.175	-0.435**	0.216	-0.323	0.287
		남성	0.519***	0.166	0.559***	0.213	0.426	0.291
		대학졸업	0.023	0.187	-0.300	0.280	0.342	0.269
		건강함	-0.311*	0.172	-0.193	0.224	-0.354	0.281
		기혼	0.010	0.206	0.098	0.266	-0.065	0.341
		서울거주	0.106	0.160	-0.060	0.202	0.574**	0.279
		개인연금가입	0.089	0.159	0.186	0.204	-0.277	0.270
		맞벌이	0.458***	0.182	0.440**	0.218	0.391	0.321
		주택소유	0.165	0.181	0.380*	0.223	-0.176	0.325
		근로자	0.384**	0.175	-	-	-	-
		상수항	1.446	0.996	1.974	1.305	0.975	1.604

- 주: 1) 종속변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형태로 이산변수이자 선택변수 때문에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적용함.
 2) 기준이 되는 종속변수는 '일부일시금 일부연금'임.
 3) 근로자에 해당하는 회사규모, 직위 등의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 전체 설명력이 감소하여 제외함.

이는 일반적으로 일시금 수령이 일반화된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은퇴시점에 필요한 목돈을 개인연금의 일시금으로 해결하고 퇴직급여로는 장기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주택소유자 그리고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n=900)를 대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니즈,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및 경쟁력 인식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주는 제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대상 대부분이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설문조사대상의 67.1%(3.72점)는 제도의 필요성(자영업자 59.1%, 근로자 72.4%)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56.6%, 근로자의 72.0%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향후 교육 및 홍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은 크게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속성별로 보면 20대보다 상대적으로 30대 및 40대 이상,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 운수업, 오락·운동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사회서비스업의 순으로 가입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계분석 결과에서도 20대 젊은층보다는 30대 및 40대 이상인 연령층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높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고학력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수입이 높을수록,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간정산, 이직, 퇴직에 따른 은퇴자금을 근로자의 약 60%인 59.9%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주력 퇴직연금시장(은퇴자금 유입에 따른 개인형 퇴

직연금시장 증대 영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 ① 사업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은행, 보험회사, 증권·투신사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회사 선호이유로 장기적·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52.3%), 연금사업자로서의 전문성(26.7%) 등을, 자영업자의 보험회사 선호이유로 장기적·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52.2%), 교육 및 사후관리서비스(32.7%) 등을 들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자의 3대 핵심경쟁력인 장기적·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 전문성, 교육 및 사후관리서비스 모두가 보험회사의 선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다만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통계분석결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의 노력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시장으로 부각될 수 있다.
- ②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을 질문한 결과, 사업자의 장기운용능력(59.0%),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37.9%), 높은 수익률(32.9%), 전문성(20.4%) 순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능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③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을 평가한 결과, 생명보험회사는 전문성(3.65점),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3.69점), 다양한 운용상품 제공(3.60점)에서, 은행은 장기운용능력(3.90)과 재무건전성 등 안정성(3.97점), 이용의 편리성(4.02점), 사회적 인지도(3.96점)에서, 증권사는 단지 높은 수익률 및 자산성장가능성(3.68점)에서 다른 금융회사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단기적으로 재무건전성에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인지도 및 수익성 제고노력 등이 요구되는 반면, 장기적으로 장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전문성 등을 보다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모집채널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약 57.8%, 자영업자의 약 48.8%가 투자권유대행인 등과 같은 모집채널보다 보험설계사에 의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은 보험회사의 성장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근로자의 17.5%, 자영업자의 14.0%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 성장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DB형 퇴직연금중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설계사 및 대리점 중심으로 모집채널의 변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별로 투자운용성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각각 37.2%와 44.2%의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선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바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20대는 27.3%, 30대는 40.3%, 40대 이상은 41.7%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 선호)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계분석결과, 수입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보다 선호하고 건강하고 주택소유자가 위험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특성과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운용상품 개발이 적극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②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약 74.4%(근로자 73.9%, 자영업자 74.3%)가 건강보장을 가미한 개인형 퇴직연금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건강한 그룹에서 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퇴직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가족의 건강까지 보장하여 주는 가족종합건강보장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대상자의 78.1%(근로자 78.3%, 자영업자 77.7%)가 선호한다고 조사되어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에 건강보장(상해·질병)을 카페테리아플랜 형태나 특약형태로 조합한 상품개발이 상품경쟁력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을 중심으로 결합상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상품처럼 단독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반면, 원리금보장상품에 실적배당형 및 건강보장을 가미한 상품(44.0%)이나 원리금보장상품에 건강보장을 가미한 상품(22.4%)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여섯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적합한 맞춤형 재무설계서비스를 향후 어떻게 제공하느냐 여부가 향후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32%(근로자 32.3%, 자영업자 30.9%)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자가 전문재무설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분석결과, 은퇴연령기에 가까운 40대 이상 연령층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이 많을수록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인터넷, 책자 및 팸플릿, 집합연수 등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